

## 국내 학부 통번역학과에서는 무엇을 교육하는가?: 학과 교육목표, 교과과정, 교과목별 강의계획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안 수 경 · 남 원 준  
(한국외대)

### 1. 들어가는 말

카탄(Katan 2014: 11-13)은 번역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기계번역, (아마추어 번역가들 중심의) 클라우드소싱 번역, 창의적인 비전문 번역가들 (creative non-translator translators,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들의 번역)을 꼽았다. 그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크게 발전했고, 번역계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 TED 번역, 위키피디아 번역, 웹툰 번역, 게임 번역 등에서 클라우드소싱을 통한 비전문가들의 번역 또는 창의적인 비전문 번역가들의 번역이 크게 늘었다(강경이, 김혜림 2021; 김순미 2016; 이지민 2021; Jones 2019). 기계번역을 필두로 번역 테크놀로지의 성장 또한 번역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학계에서도 번역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번역 실무와 교육에 주는 함의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통찰해왔지만(박지영 2017; 이향 2018) 기술 발달의 속도는 더 빠르다. 신경망 기계번역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학계가 시끌벅적해졌는데(Pym and Torres-Simón 2021), 이제는 생성형AI ChatGPT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떠들썩하다(김인성 2023; 박수정, 최은실 2023).

번역학계에서만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다. 국내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육 혁신이다(변순용 2015; 전중희 2023). 여기에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최근 이과 선호 및 의대 쏠림현상이 짙어지고 있어, 문과 내에서 특히 어문 계열은 긴장해야 할 때이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 문을 두드릴 것이다. 2022년 교육개정에 따른 고교 학점제 실시(김태주 2022; 남궁민 2021)가 그것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고교학점제(서봉언 2020)에서는 외국어 공부를 희망하는, 나아가 통역과 번역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일찍 사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학 통폐합, 학과 통폐합에서 통번역 교육도 자유롭지 못하다. 통번역은 언어 숙달과는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며, 최근 일부 통번역학과가 통합되거나 외국어대학이 폐교되는 사례도 있었다(손지봉 2019: 117).

바야흐로 변화의 시기이다. 학부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은 학과 출범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부 통번역 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학부 교육목표로 ‘전문 통번역사 양성’이라는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그대로 이식할 수 없음에 일련의 함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학부 교육에서는 언어능력과 번역능력, 문화능력 등을 함께 가르친다는 큰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김련희 2011; 김순영 2006; 남원준 2009; 조성은 2007). 이제 더 나아가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부 수업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범위, 교육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체계화와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이향 2011, 2016; 조성은 2007), 실제 학부 통번역수업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손지봉(2019)이 강좌명을 토대로 교과목 구성을 살펴본 것은 의미가 있으나, 더 많은 요소들을 심층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지선(2013)도 번역교육 관련 커리큘럼 연구가 시

급하다고 꼬집는다.

국내 학부 통번역학과에서는 무엇을 교육하는가? 본 연구는 학과 교육목표, 교과과정, 교과목별 강의계획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부 통번역 교육의 큰 방향성이 실제 학부 수업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내 3개 대학 통번역학과의 학과 소개, 교과목 구성과 교과목 개요, 주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분석을 토대로 학부 통번역 교육의 현 상황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 통번역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3장에서 분석대상과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5장에서 후속연구를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부 통번역학과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큰 연구의 예비 연구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목표

교육목표 설정은 커리큘럼 연구의 출발점이다. 교수자는 교육목표 설정과 함께 여러 이점을 갖게 된다(Delisle 1998: 21-2, Kelly 2005에서 재인용). 먼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의 소통이 용이해진다. 학부 수업에서 교수자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수업개요와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해당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수강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음으로 교육목표가 설정되면 교수자의 교재 및 교수도구(teaching tool)의 선택이 수월해진다. 그밖에 해당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교수자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연계된 평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목표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

통번역 교육의 목표 설정에 앞서 참작할 요소도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 요인, 참여 학생들의 구성과 요구사항, 그밖에 통번역사의 직업 표준이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운영 주체의 정책이나 제한사항, 학문적 고려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Kelly 2005: 22). 다시 말해, 교육목표

를 설정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지 일일이 파악해야 한다. 수많은 고려 요소 중에서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기존의 교육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통번역 전문대학원의 오랜 교육 역사와 경험에도 불구하고<sup>1)</sup>, 대학원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그대로 학부 통번역학과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학부 통번역 교과과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 목표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 배경, 학습자 요구사항, 번역능력의 교육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던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성은(2007)은 학부 교과과정이 통번역 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기 위해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부 교과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등 학부 교과과정의 모범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 답변을 근거로 통번역 교과과정, 실용영어 교과과정,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교과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코 높다는 점을 눈여겨보았으며, 통번역 교과목의 세부적 교육내용 및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원준(2009)은 국내 학부 통번역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논점에 대해 교강사 인터뷰와 학부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 통번역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을 고민해보았으며, 학부 과정의 일반적인 교육목표인 영어능력 향상과 통번역 기초 함양을 위해 학부 차원에서 어떤 점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학부 교과과정 운영 측면에서 직접 관련된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저학년 언어능력 집중교육과 통번역 이론 교육 강화, 통번역 실무 경험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성은(2007)과 남원준(2009)의 연구는 국내 통번역교육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연구로 학부 교과과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후 유사한 주제를 구체화하여 진행된 후속연구가 없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김련희(2011)는 학부 통번역교육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짧은 역사 때문에

1) 한국의국어대학교 내 통번역대학원은 1979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2000년 전후로 후발 통번역대학원이 다수 설립되었다(안인경 2019: 116-119).

교과과정 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여겼다. 학부 번역교육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점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로, 학부 번역교육은 문화간 중개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는 동시에 통번역 관련한 진로 탐색 과정으로 보았다. 나아가 대학원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전문가 능력을 위한 준비 단계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부 차원에서 국내 통번역교육의 목표 설정과 그에 합당한 교과과정 개발 및 시행에 앞서 기초 연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학부 통번역교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초반에 실시되었는지 짚어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연구이기는 하나 개괄적인 제안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항(2011)은 외국어교육의 실용화 경향이 강해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결과로 학부 통번역수업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배경(김련희 2002)을 들며, 학부 과정에 통번역수업이 선택된 건 일종의 자구책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통번역교육이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학부 차원에서 번역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음을 아쉬워한다. 동시에 과연 학부 번역과목이 학생들의 기대와 교과과정의 목표를 충족시킬 만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교과과정 상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였으나 학부 번역교육의 목표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강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피드백 방식도 점점이 필요하다 등의 조언으로 마무리한다. 이후에 연구소 행사로 진행되었던 번역클리닉 사례를 통해 그러한 고민의 필요성을 일부 보여주면서 연구를 마친다.

선행연구는 학부 통번역교육의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2 교육목표의 다양한 층위

교육목표는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학부의 경우 학과에서 정하는 교육목표, 교과목별로 학과에서 제안하는 교과목별 교육목표, 실제 수업 차원에서 교수자가 제안하는 수업목표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켈리(Kelly

2005: 22)는 이와 관련하여 교과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학과 전체 교육목표(overall aims)가 있고, 더 나아가 하위 단위(lower-level subdivisions)의 세부 학습목표(specific learning outcomes/objectives)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졸업생)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목표의 층위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Biggs and Tang 1999/2011: 113).

<표 1> 층위별 교육목표

층위(level)	의미	학부 교육
조직 (institutional)	대학 졸업생은 무엇을 배우는가?	학교
학위 프로그램 (program)	특정 학과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무엇을 배우는가?	학과
코스 (course)	일정 코스를 마쳤을 때 학생은 무엇을 배우는가?	교과과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학과, 교과과정 등 층위가 점차 낮아질수록 단계별 교육목표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다. 학부 통번역학과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상빈(2015)은 국내 학부 영어통번역 프로그램의 입학 및 전공자, 졸업요건, 교과목의 주요 특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3개 대학의 운영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짚어보면서 학부 교과과정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토론에서 제시한 12가지 제안사항은 연구자의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부 통번역 프로그램은 실무 훈련 중심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와 유사한 제안이었다.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 필요한 동시에 번역수업의 유형과 내용의 다양화를 제안하거나, 기초필수과정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고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이었다.

손지봉(2019)은 2000년대 초중반 통번역교육의 양적 증가 추세는 확실했으나 해당 연구 시점에서 확인해보았을 때 이미 그 증가세가 꺾였고, 전공 학과뿐만 아니라 일반학부에 개설된 통번역 과목까지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관찰하였

다. 국내 통번역교육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통번역대학원과 학부 통번역학과, 일반 언어학부 내 통번역 과목의 구성을 강좌명을 토대로 이론 관련 수업과 주제 지식 관련 수업, 언어숙달, 통번역실습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학원과 학부 전공, 일반학부의 통번역수업까지 총망라하여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연구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체계와 변별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외적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연구방법 측면에서 교과목 구성만을 확인한 부분과 교육내용 또한 강좌명을 토대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실제 교육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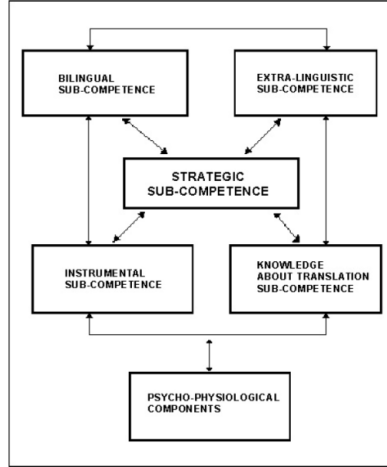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학부 통번역학과에서 무엇을 교육하는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점검하기 위해, <표 1>의 층위별 교육목표를 단계별로 추적해봄으로써 가장 낮은 층위인 전공 수업의 교육목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3 PACTE 그룹의 번역능력 모델과 통번역학의 교육목표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 함양이라는 번역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번역능력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총체적이고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신지선 2013). 학자에 따라 다양한 번역능력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Gile 1995; Pym 1992; Wilss 1976), 본 연구에서는 팍테그룹의 번역능력모델(PACTE 2003: 18)을 토대로 학과 교육목표를 살펴보았다.

팍테그룹의 번역능력은 6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능력이 순차적으로 배양했을 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각각의 요소들이 통합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총체적인 번역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PACTE 2003: 18). 학부 교육에 팍테그룹의 번역능력 모델을 적용해보면 학생들이 1학년년부터 각각의 하위능력을 단계별로 하나씩 교육받게 되면 고학년에서 이르러 번역능력의 총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PACTE 그룹의 번역능력모델



<그림 1>의 번역능력모델(PACTE 2003: 60)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팍테그룹은 번역능력을 6가지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중언어능력(bilingual sub-competence), 번역지식능력(knowledge about translation sub-competence), 언어외적능력(extra-linguistic sub-competence), 도구능력(instrumental sub-competence) 등의 4가지 구성요소가 있고, 그림의 화살표는 각각의 하위능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가지 하위능력을 연계하여 통합하는 전략적 능력(strategic sub-competence)이 가운데에서 다른 하위능력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단에 정신생리학적 요소(psycho-physiological components)가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학부 교과과정을 팍테그룹과 같이 구성적 요소로 보는 것은 교수자의 편의일 수 있다.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하나의 과업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련의 과정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업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또한 팍테의 번역능력을 기준으로 교과과정을 분류 또는 분석하는 것이 최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현재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고 특정 교과목에서 어떤 영역에 무게중심을 상대적으로 더 두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능력의 6가지 하위능력 중에서 학부 교육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5가지 번역능력과 관련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PACTE의 번역능력 하위범주와 관련 교과목

번역능력 하위범주	관련 교과목
이중언어(bilingual)	영어와 한국어 숙달 관련 교과목
번역지식(knowledge about translation)	번역이론 또는 실무 관련 교과목
주제지식(extra-linguistic)	분야별 배경지식과 용어 관련 교과목
도구사용(instrumental)	CAT, 기계번역 등 컴퓨터 사용 관련 교과목
전략(strategic)	현장실습 또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정신생리학적 요소 또한 중요한 번역능력이라는 하나 현 교과과정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목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 2.4 Bloom's taxonomy와 수업목표

블룸(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Revised Bloom's taxonomy)(Anderson et al 2001/2005: 113)은 대학교육보다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모두에서 교육목표를 분류한 연구에 자주 사용하고 있다(기지윤, 장종화 2021; 김복남, 김명자 2019; 김영신, 이혜숙, 신애경 2007; 박기범 2016; 신진걸, 조철기 2008; 하소연, 광대오 2008). 국내의 번역 연구 중에서 블룸의 분류학을 적용한 사례를 최대한 알아보았으나 해당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대학의 교육목표 분석에 분류학을 적용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손행미 외(2011)는 간호대학 학부 과정 중에서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의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부 과정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부 저학년 과정에서 의사소통 이론 수업을 수강하고 고학년에 바로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의 경험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간호대학 학부 과정 교과목 중에서 의사소통 관련 수업의 개설 현황과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육 및 평가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48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사소통 관련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취합하

여 분석하였다. 강의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1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교과목 목표는 블룸의 교육목표분류체계(Bloom 1956)를 근거로, 학습내용은 관련 전문서적의 목차와 내용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신교육목표분류학은 블룸의 초기 교육목표분류학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은 인지과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을 수업목표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안하기 등 6개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동사의 층위가 높아질수록 인지과정에서 난이도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분류표는 교육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 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는 지식층위 분류가 추가되었다.

〈표 3〉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Revised Bloom's taxonomy)

지식 층위 (The Knowledge Dimension)	인지과정 층위(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기억하기 Remember	이해하기 Understand	적용하기 Apply	분석하기 Analyze	평가하기 Evaluate	창안하기 Create
사실적(factual) 지식						
개념적(conceptual) 지식						
절차적(procedural) 지식						
메타인지(meta-cognitive) 지식						

(난이도에 따른 화살표는 연구자 추가)

지식 층위 상단에 사실적 지식의 예로 전문용어 또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들 수 있으며, 개념적 지식으로 분류, 원리, 일반화 등이 있으며 이론 교육이 주로 개념적 지식에 해당한다. 주제지식과 알고리즘, 특정 주제분야 기술과 방법, 기준 세우기 등이 절차적 지식에 해당하여, 개념적 지식을 통해 배운 이론을 직접 활용해보는 부분이 해당된다. 메타인지 지식은 전략적 지식에 해당하며 절차적 지식 단계를 넘어 개념적 지식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 표를 적용하여 학부의 학년별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4장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3장에서 연구방법을 살펴보겠다.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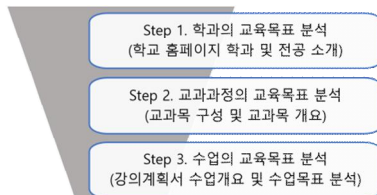
#### 3.1 분석대상 선정

국내 학부 통번역교육의 목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 3개 대학의 통번역학과를 선택하였다. 학부 프로그램의 개설 연도와 독립된 학과 운영 여부, 강의계획서 접근성 등을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이상빈(2015: 23)이 밝힌 바와 같이 국내 학부 통번역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 표본으로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목표를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이하, G대학)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이하, D대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구, 영어통번역학과) (이하, H대학)

먼저 3개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과 및 전공 소개 내용을 통해 학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과 교과과정 소개 및 교과목 개요 내용을 토대로 학과 차원에서의 교육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 1학기 및 2학기의 강의계획서에 기술된 수업개요 및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수업 차원에서의 교육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흐름도



### 3.2 분석방법

먼저 학과 소개 및 교과목 개요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엑셀 파워쿼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전체 내용 중에서 자주 사용된 어휘와 빈도수를 함께 확인하여 학부 통번역교육의 총체적인 목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나 키워드 분석으로는 대략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과정 구성을 점검해보기 위해 팩테그룹의 번역능력 모델을 참고하여 3개 대학의 교과목을 분류하였다. 일부 강좌의 경우 강좌명을 보았을 때 이중언어능력과 번역지식능력을 동시에 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3개 대학의 교과과정은 주로 이중언어능력, 번역지식능력, 주제지식 능력 순으로 학년별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교과목 분류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주제지식, 번역지식, 이중언어 순으로 우위를 두어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청해는 영어능력, 통역듣기(통역+영어듣기)는 번역지식능력, 시사번역(시사지식+번역)은 주제지식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3개 대학에서 각각 집중교육하고 있는 부분과 반대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현재 교과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목표를 살펴보기 위해 교과목 개요와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교과목 개요의 내용은 학과 차원에서 교강사들에게 제시하는 일련의 가이드로 교강사 및 학부 전공생들이 공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 대학의 교과목 개요를 신교육목표분류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H대학 2학년 수업의 교과목 개요와 분석 내용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의 이론과 실제(Translation Theory & Practice): 번역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 분석,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

지식 층위(The Knowledge Dimension)에서 ‘번역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는 것은 개념적 지식에 해당한다. 인지과정 층위(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에서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부분은 이해와 적용하기(apply)에 해당하며,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는 것은 분석하기(analyze),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은 평가하기(evaluate)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였다. 통번역교육의 특성상 ‘분석한다’는 표현을 자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분류표 상에서 인지과정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였다. 원문을 이해하여 번역 실습을 해보는 것을 의미하면 적용하기(apply), 번역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분석하기(analyze), 이를 통해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목표텍스트(target text)를 선택하여 번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가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평가하기(evaluate)로 분류하였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자가 분류한 통번역교육목표의 인지과정 층위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4〉 통번역교육의 인지과정 층위

기억하기 Remember	이해하기 Understand	적용하기 Apply	분석하기 Analyze	평가하기 Evaluate	창안하기 Create
(단순 암기 제외)	이론 소개 및 학습, 환경 간 언어차이 이해, 문화차이 이해	원문 이해/분석, 번역 실습, 커뮤니케이션과 전달력 향상	번역문제 인지, 주제지식 적용, 장르별 번역	문제 해결 자가, 동료평가	최종 번역물 제작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의 수업개요와 수업목표는 팍테그룹의 번역능력 모델을 토대로 1차 분류하였고 각각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수업 차원의 교육목표를 함께 분석하였다. 2023년 1학과 2학기에 등록된 3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는 총개수는 155개이고, 학교별로 등록된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표 5〉 분석대상 강의계획서

대학	이중언어	번역지식	주제지식	도구	전략	합계
G대학	22	9	4	0	3	38개
D대학	17	9	5	5	8	44개
H대학	14	36	13	5	5	73개

본 연구는 수업차원의 교육목표를 분석하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분석한다.

강의계획서는 수업 차원에서 각 강좌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보여주는 교육계획으로 구성요소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업 개요, 수업목표, 수업운영방식, 교재, 평가비율 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강사에게 필수로 입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강의계획서는 교수 활동 설계에 대해 교수자가 고민 끝에 내린 결과물(강승혜, 이은준 2013: 13)이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설명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강의계획서는 학기 전에 작성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 운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교수가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일한 교과목이 여러 강좌 개설될 경우 학생들은 강의 시간의 편의성 외에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수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의계획서는 교과목의 운영 전반을 보여주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 창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수업 차원에서의 교육목표를 점검해보는 것이 일부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학부 통번역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점검하는 출발점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통번역학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번역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최희경(2010)은 번역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실제 교육과정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공통분모는 있으나, 개괄분석에서 강의계획서 5년 치를 모아 게시 비율, 강의계획서 반복 사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심층분석에서 일부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과목 간의 연계성과 교강사 간 편차 등을 기술하였다.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대학원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던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학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목표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연구목표와 분석방법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중희(2016)는 인터넷에 게시된 강의계획서를 추출하여 해외 10개 대학의 컴퓨터보조 번역(Computer Aided Translation) 수업사례를 취합하였고, 학습목표, 학습내용, 평가, 학습성과 등 네 가지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CAT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제시하는데 이론형, 입문형, 실천형으로 구분된 수업유형을 제안한다. 실제 수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유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국내 교육상황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최은실(2021)은 통번역 학습자들의 강의계획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의계획서의 실사용자인 학습자의 시각에서 강의계획서의 활용도, 만족도, 항목별 중요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론 부분 중에서 교육목표와 학습 활동 계획의 연계성 부분을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일 것이며 본 연구의 후속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는 교강사의 자율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수자의 입장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4. 분석

4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학부 통번역교육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를 학과의 교육목표,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수업의 교육목표 순으로 제시할 것이다. 토론을 통해 몇 가지 향후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짚어보겠다.

### 4.1 통번역학과의 학과 소개

학과 소개 중에서 졸업 후 진로 안내는 3개 대학의 소개 내용 중에서 가장 남아있는 부분이었다. 졸업생들의 취업 후 진로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졸업 후 진로 안내 부분에서 3개 대학 모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 관련 업무 이외에 학계, 언론계, 정부 기관, 기업 등의 진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법조계나 금융권 취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인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대학원과는 이미 차별화된 부분일 것이나, 학부 통번역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교육목표와 학부 전공생만의 졸업 후 진로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이향 2016: 121).

3개 대학의 전공 소개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G대학의

경우 국내 유일의 응용영어학 전공 학과임을 강조하며, 영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힌다. 교육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언론학, 심리학 등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과 소개를 통해 언어능력, 번역능력, 문화능력 중에서 언어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대학의 경우 영어 및 통번역 전문가, 관련 데이터 구축 전문가, 언어자원 분석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고 소개한다. 소통 기술과 분석적 안목을 키우도록 집중교육하고 있으며, 영어학 이론, 문화, 통번역 기술 등을 함께 교육하고 있다고 밝힌다. 4차 산업혁명의 창의융합 시대라는 표현과 함께 데이터, 언어자원, 분석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기계번역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테크놀로지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능력의 하위범주인 도구능력 관련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과과정과 수업목표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H대학의 학과 소개에서는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문화 중개자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학과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외국어교육, 체계적인 통번역 프로그램, 이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이 고루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통번역 실무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영어와 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영어능력, 번역능력, 문화능력 등 세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교과과정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 4.2 통번역학과의 교과과정: 교과목 구성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과목 개요의 전체 내용을 모아 키워드 분석을 해본 결과 G대학은 ‘영어’와 ‘언어’가 가장 많았고, D대학은 ‘영어’와 ‘다양한’, ‘번역’ 순으로 나타났다. H대학은 ‘번역’과 ‘다양한’, ‘영어’ 순이다. 키워드 분석에서 상위 5개 단어를 보면 다양한 텍스트의 이해를 기반으로 영어 또는 번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교과목 개요를 키워드 분석하여 얻은 각 대학별 상위 키워드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3개 대학의 교과목 개요 상위 키워드

G대학	D대학	H대학
영어(24회)	영어(34회)	번역(36회)
언어(22회)	다양한(21회)	다양한(23회)
다양한(22회)	번역(19회)	영어(19회)
이해(20회)	이해(16회)	학생들(17회)
텍스트(20회)	과목(14회)	텍스트(14회)

다음은 학교별 개설 교과목을 키워드그룹의 번역능력 하위범주로 분류해본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개 대학 모두 언어능력과 번역능력을 함께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다음 표를 보면 3개 대학의 번역능력별 교과목 구성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7〉 번역능력별 교과목 구성 비율

대학	이중언어	번역지식	주제지식	도구	전략	합계
G대학	19 (59%)	7 (22%)	4 (13%)	0 (0%)	2 (6%)	32 (100%)
D대학	12 (38%)	8 (25%)	3 (9%)	5 (16%)	4 (13%)	
H대학	8 (25%)	11 (34%)	8 (25%)	2 (6%)	3 (9%)	

G대학의 경우 언어능력 관련 수업이 전체 교과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번역지식 관련 수업과 주제지식 관련 수업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학과명과 전공 소개 내용과 일치하는 구성으로 교과목 구성에서도 언어능력, 특히 영어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문학, 영어학, 응용영어학, 음성음운론, 통사론, 교육론 등 다양한 개론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밖에 영어독해, 영어작문, 영어문법, 영미문화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번역지식 관련 수업은 통번역개론이 1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고, 시역통역과 영한번역을 2학년에 배운다.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영한 순차통역과 한영 순차통역, 한영번역을 배운다. 도구능력 관련 수업은 현재 개설되지 않았다.

D대학의 경우 언어능력 관련 수업이 번역능력 관련 수업보다 조금 더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어학 관련 수업을 살펴보면 영어학 입

문과 음성학, 문장구조론 등 일부 개론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론보다는 실용영어 관련 수업이 더 많다는 점에서 G대학과 차이를 보였다. 번역능력 관련 교과목 중에서 텍스트유형과 번역, 영어회용문과 번역, 해석학과 번역 등 주변 학문 이론과 접목한 번역수업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이다. D대학이 다른 두 학교와 비교하여 도구능력과 전략적 능력과 관련하여 수업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최근 학계의 이슈를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번역 관련 수업 이외에 빅데이터 활용 영어 담화/대화 분석, 영어데이터통계분석기초, 문학번역의 인간번역과 인공지능번역을 비교하는 수업 등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2학년에서 4학년에 이르기까지 현장실습 수업도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언어 방향 관련하여 한영 통번역 수업은 별도로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대학의 경우 번역지식과 번역수행 전략능력 관련 수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능력과 주제지식 능력 관련 수업이 유사한 수치로 개설되어 있었다. 영어학 관련 이론 수업은 전혀 개설되지 않았는데, 소속 단과대학 내 언어학, 영문학 전공 학과와의 교류를 통해 관련 수업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번역지식 관련 수업은 타학교 대비 다수 개설되어 있었으며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도 통번역이론과 문화관련 번역수업이 다수 운영되었고, 영한과 한영 양쪽 언어 방향의 통역과 번역 수업이 입문부터 심화 과정까지 고루 개설되어 있었다. 주제지식 관련하여 문학번역, 디지털미디어 번역, 산업경제 번역 외에도 게임과 웹툰 번역, 법률 영어, 국제 관계 이슈 등을 다루는 수업은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부분이었다. 도구능력 관련하여 CAT툴 관련 수업과 포스트에디팅 수업이 각각 2학년과 4학년에 배정되어 있었으며 D대학과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은 현재 찾아볼 수 없었다.

#### 4.3 통번역학과의 수업목표(1): 교과목 개요

다음으로 3개 대학의 교과목 개요를 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과목 개요의 내용을 토대로 학과에서 제시하는 각 수업의 교육목표를 블룸의 신교육 목표분류학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층위와 지식층위에 따라 교과목의 난이도를 분류함으로써 학부 통번역 교과과정의 교육 순서(sequencing)(Kelly 2005: 113)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앞서 2.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림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지식의 내용과 인지과정이 점점 복잡해진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업의 난이도는 그림의 우측 하단에 위치할 수록 평균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년별 교과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먼저 G대학의 교과과정을 학년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G대학 1학년의 교과목(그림 3)은 학생들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익혀야 하므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인지층위 차원에서 이해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교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감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G대학의 1학년 교과목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통번역개론(1) 영어학개론(1) 영문학개론(1) 영어독해(1) 번역기원영어특례(1)				
Meta-cognitive Knowledge		인문학과진로탐색(1)				

〈그림 4〉 G대학의 2학년 교과목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영어학개론(2)	영어습득개론(2) 응용영어학개론(2)	국제통역개론(2) 국제어프터의 영어(비)(2)			
Procedural Knowledge		영미문화(2) 시역용역(2)	국제통역개론(2)			
Meta-cognitive Knowledge						

〈그림 5〉 G대학의 3학년 교과목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영어교과목(영어영문학과(2), 영어영문학과(2))	영어대학분석(3)	영어동사론(3), 영어문학개론(3), 영문독해(3), 영문번역개론(3)	비교문화분석(3), 고급영문법(3)	
Procedural Knowledge		영문독해(3)	영문번역개론(3)	영문독해(3), 시사번역(3)		
Meta-cognitive Knowledge						

2학년(그림 4)과 3학년(그림 5) 과정은 주요 교과목의 수업목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수업 대비 통번역 교과목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지식 또는 원리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실제 번역을 해보는 수업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진다.

4학년(그림 6) 과정은 절차적 지식을 적용 또는 분석하는 수업이 늘어났고, 독립심화학습 1과 2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메타인지 지식을 종합적으로 사고해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6〉 G대학의 4학년 교과목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사회언어학(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Procedural Knowledge		사회언어학(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영문독해(4), 영문번역개론(4)	
Meta-cognitive Knowledge						독립심화학습1(4), 독립심화학습2(4)

다음은 D대학의 교과과정이다. D대학은 교과목의 학년별 구성이 다른 학교와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수업을 1~2학년, 3~4학년 과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림 7> D대학의 1~2학년 교과목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통역기초(1-2)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1-2) English Grammar for Specific Purposes (1-2) Fundamentals of English Writing (1-2)	영어의미론(1-2) 통번역시사영어1&2 (1-2)	영어학입문(1-2) Discussion & Presentation in English (1-2)		
Procedural Knowledge			Fundamentals of English Listening & Speaking 1&2 (1-2)			
Meta-cognitive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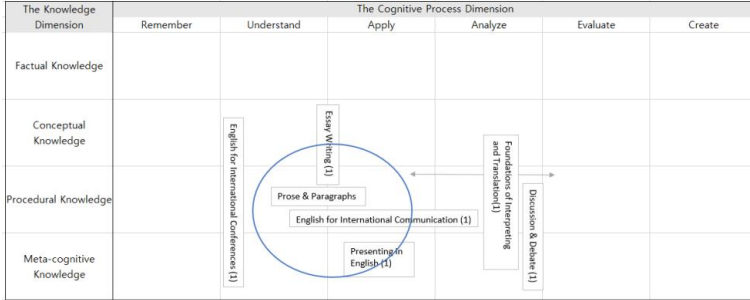
<그림 8> D대학의 3~4학년 교과목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AI 영어교육과 언어실력 입문(3-4) 학생학교 번역(3-4) 영어회화론과 번역(3-4)	문학과 영상번역(3-4) AI영어교육과 언어발달(3-4)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3-4)	문학번역의 인간관계와 신경기반인공지능(3-4)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3-4) 비국립어 활용 영어담화/대화 분석(3-4)		영어통번역학전공 커리어 매트릭스(3-4)
Procedural Knowledge			Interpreting Translation & Global Communication (3-4)	Professional English Writing (3-4) Academic English Writing & Composition (3-4) Conference Interpreting Practice (3-4)		
Meta-cognitive Knowledge						졸업논문작성준비프로젝트 1&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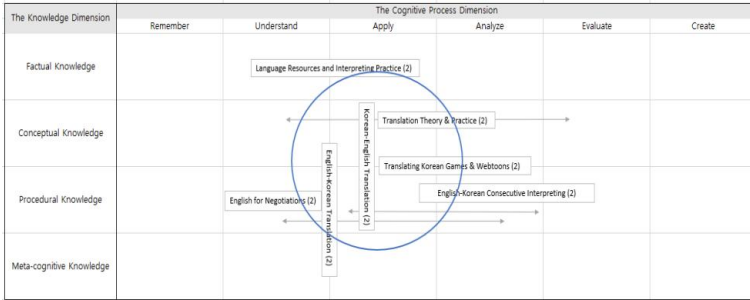
D대학은 학부 저학년 과정에서 실용영어와 통번역의 기초를 배운다. 신교육목표분류표의 양쪽 층위에서 보면 새로운 이론 지식을 소개하거나 일부 실무 활동을 통해 적용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고학년 수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그림 8>의 좌측 상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구능력 관련 수업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수업의 난이도 또한 세심하게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수업도 우측 하단에 위치해있다.

다음은 H대학의 학년별 교과목 개요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9〉 H대학의 1학년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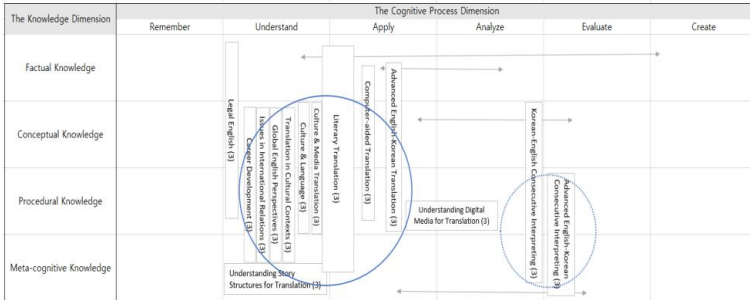


〈그림 10〉 H대학의 2학년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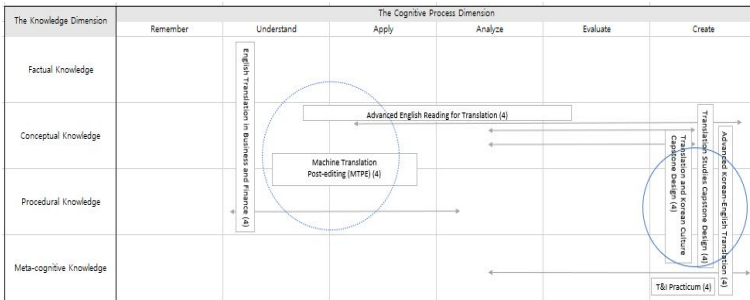


1학년(그림 9) 과정을 살펴보면 지식층위와 인지과정 층위 모두에서 3개 대학 중 가장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그림 10)의 교과목 구성은 지식층위와 인지과정 층위 모두에서 단계별로 차츰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별 교과목 구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 입장에서 전공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느끼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림 11〉 H대학의 3학년 교과목



〈그림 12〉 H대학의 4학년 교과목



3학년(그림 11) 교과목은 저학년 수업 대비 지식층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식층위의 변화는 주제지식 관련 수업이 다수 도입되면서 나타난 변화일 수 있다. 인지과정 층위가 이해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고차원적 지식을 소개하는 정도로 운영될 것이다. 4학년(그림 12)의 경우 캡스톤 과목은 지식층위와 인지과정 층위 모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림 11>의 우측에 위치한 교과목과 <그림 12>의 좌측에 위치한 일부 교과목은 향후 점점이 필요한 수업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4.4 통번역학과의 수업목표(2): 강의계획서

다음은 교강사의 재량이 발휘된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수업개요와 수업목표

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언어능력 관련 수업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용영어 교과과정이 3개 대학의 공통된 교과과정으로 나타났다. 고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글쓰기와 발표 등 능동적 언어 생산에 맞추어져 있는 부분은 학부 통번역 교육과정의 출범 배경이 잘 반영된 부분일 것이다. 다만 언어학 관련 이론 수업에 대해서,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수업목표만 고려한다면 인근 언어학과 전공 과정의 기초 수업과 차별되는 부분이 무엇일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번역지식 관련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통번역 기초(basic)라는 표현이 무척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강의계획서만 놓고 본다면 학부생들은 2학년에 영한번역의 기초, 통번역학의 기초이론을 배우고, 3학년에 기계번역 전반의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고, 4학년 캡스톤 과목에서까지 번역학 기초이론을 학습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계획서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학부에서 가르치는 통번역 기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일 것이다. 번역학입문, 통번역개론과 같은 번역이론 수업의 경우 전공기초를 교육목표로 내세우는 건 짐작건대 대학원의 전문과정과 차별되는 다소 쉬운 번역이론을 의미하는 것이겠으나, 번역이론 수업은 주변 학문분과와 차별화되는 통번역학과 고유의 수업이다. 이런 전공 수업의 수업목표에 ‘기초’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학 이론 수업에서 주요 개념을 소개하는 것과 번역학 기초를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수업목표에서 기초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건 실무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원 과정과 비교하면 4학년 전공 수업도 난이도가 낮을 수 있으나, 학부 교과과정을 독립된 학문분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학원 과정과 비교하여 학부과정 전체를 입문과정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번역은 전문대학원을 가야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학부 통번역학과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학부 전공생이 모두 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안으로, 학부 통번역 전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초’를 두루두루 배울 수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부 과정은 심화 단계까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고민해볼 부분이다.

번역지식 관련 수업내용에서 교수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육내



용을 번역수업과 통역수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번역수업에서는 원문 이해, 번역문제(식별, 분석, 해결), 도착어 표현, 번역전략과 방법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통역 수업에서는 듣기, 메모리, 문장구역, 노트테이킹, 전달능력, 퍼블릭스피킹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된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학부 수업목표의 기초와 심화 수업내용을 나누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제지식 능력 관련 수업에서는 다양한 주제분야(various subject areas)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번역, 과학기술번역 등의 주제지식 관련 수업에서는 주제 분야가 다소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텍스트 장르를 다룬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미디어 번역수업은 미디어, 웹사이트, 스트리밍 비디오, 디지털 광고, 비디오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가 수업목표에 나열되어 있다. 법률 번역에서도 법률 용어, 지적재산, 이민, 계약, 불법 행위, 헌법, 형사, 국제, 인권, 고용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가 제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목표에서 다양한 주제분야를 삭제해야 한다거나 학부 수업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현재의 수업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은 수업에서 다양한 주제분야를 가르치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였다. 학부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룰 수 있는 내용과 주제지식 범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도구능력 관련 수업은 3개 학교에서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G대학은 관련 수업이 없었으므로 D대학과 H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AT 수업은 주로 기계번역의 원리와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번역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 등을 토론하였다.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기계번역 결과물의 교정교열에 집중하여 기계번역 결과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역문제를 다루었다<sup>2)</sup>. 문학번역의 인간번역과 신경망기반 인공지능번역을 비교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고, 학생이 직접 번역한 결과물과 기계번역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면서 인공지능번역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코퍼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빅데이터 활용 담화분석과 통계분석기초 수업도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해당 수업은 주로

2)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D대학과 H대학의 유일한 공통 과목이었으나, D대학의 경우 해당 수업의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않아서 수업목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강사 설문 또는 인터뷰 등의 후속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프로그램 소개에 목표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능력 관련 수업으로 3개 학교 모두에서 4학년에 캡스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고, 대부분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부 졸업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 해당 수업의 목표임을 알 수 있었다. D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단기간의 현장경험을 쌓으면서 실무능력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현장실습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 4.5 논의

팍테그룹의 번역능력별로 3개 학교의 교과과정을 요약해보자면 G대학은 이중언어, 특히 영어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언어학 관련 이론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학과 소개와 교과과정 구성 모두에서 번역능력보다 언어능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D대학은 이중언어 능력과 번역지식 간에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언어 관련 수업을 조금 더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도구능력 관련 수업은 3개 학교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대학은 번역지식 능력 향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중언어 관련 수업과 주제지식 관련 수업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D와 H대학에서 CAT,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인간번역과 인공지능 번역, 웹툰과 게임번역 등의 교과목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서론에서 밝혔던 최근 번역계의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학부 차원에서 비교적 잘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학과 전공소개, 교과목 개요, 수업목표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 통번역교육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과 전공소개 중에서 졸업 후 진로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원과 구별되는 부분이 없고 주변 언어학 전공 학과의 졸업 후 진로 내용과 유사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었다. 인문학 분야의 학문분과가 가진 한계일 수 있으나, 졸업생 취업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면 통번역학과의 실용적 특성을 살려 더 구체적인 진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학년별 교과과정 운영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팍테그룹의 번역

능력을 토대로 저학년에 이중언어 수업을 배열하고, 번역수업은 중간 학년에, 주제지식 관련 수업은 고학년에 배정하는 것 이상으로 다각도에서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학부 교육과정에서 교과목 조율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한 과정이겠으나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신교육목표분류학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학년별 또는 수업 간의 조율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H대학의 3학년 문화 관련 수업이 3개 모두 동일한 지식 층위와 인지과정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수업에서는 문화이론을 소개하고, 한 수업에서는 문화 차이에 따른 언어 표현의 차이를 분석하고, 또 다른 수업에서는 번역이 어려운 관용표현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번역을 생성해보는 등 인지과정 층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업목표와 활동을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의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수업목표보다는 대략적인 수업개요만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초(basic)와 다양한 주제분야(various subject areas)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교과목 중에서 통번역전공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번역지식과 주제지식 관련 교과목의 수업목표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수업목표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쳤을 때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동일한 교과목일지라도 담당 교강사에 따라 다른 수업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수업개요와 수업목표의 차이에 대한 교강사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학부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기초’와 ‘주제지식’의 범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계번역과 인공지능번역과 같이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교육목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번역도구 수업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또는 그런 수업이 없다는 것만으로 도구능력 관련 수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 짓는 건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번역도구 수업이 다른 수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박지영 2023), 기계번역에 대한 담론은 실제 번역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번역실무와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구능력과 전략적 능력 관련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나가는 말

학부 통번역학과는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짧은 시간에 큰 증가세를 보였고, 동시에 학부 통번역 전공 학과만의 고유한 교육목표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능력, 번역능력, 문화능력을 다양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실제 3개 대학의 교과과정 구성에도 유사한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총체적인 교육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수업 차원에서의 교육목표의 점검은 필요성만 제시하였을 뿐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G대학, D대학, H대학 등 3개 대학의 통번역전공 학과를 중심으로 학부 통번역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학과에서 공개하는 교육목표, 교과과정의 구성,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서의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내용을 거시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부 통번역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3개 대학의 학과 및 전공소개, 교과목 구성 등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고, 현재의 학년별 교과목 구성이 타당한지 신교육목표분류학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학과 차원에서 제시한 교과목 개요와 교강사의 재량이 발휘된 강의계획서에 기술된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학부 통번역교육의 구체적인 수업목표를 짚어보았다. 하지만 연구 한계는 분명하다. 3개 대학이 대표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여전히 국내 다른 대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교육목표분류학을 적용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살펴보긴 하였으나 통번역교육에 적용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대안이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강의계획서 분석과 관련하여 정량분석을 실행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제안사항은 학부 통번역교육의 구체적인 수업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3개 대학 외에 국내 다른 대학의 통번역전공 교육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대학의 학부 통번역 전공 수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업목표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학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수업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강의계획서에 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교강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토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영한번역의 기초, 통번역이론의 기초 등 ‘기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어 보거나, 다양한 주제지식과 관련하여 학부 통번역수업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의 텍스트를 공부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문에 제시했던 테크놀로지 발달 등에 따라 번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든가, 대학구조개혁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다. 현재의 학교별 교과과정 분석을 토대로 번역교육 전문가들, 교수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재를 넘어 미래에 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현재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학부 통번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연구를 계기로 학부 통번역교육의 미래 비전에 관해 함께 숙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경이, 김혜림 (2021) 「한국 웹툰 번역 업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 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3): 9-39.
- 강승혜, 이은준 (2013)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에 따른 활용과 만족에 대한 연구: 교육대학원생들의 사례」, 『교육과학연구』 44(1): 31-61.
- 기지윤, 장종화 (2021)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기반한 치위생학 학습목표 분석」, 『한국치위생학회지 (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1(2): 193-201.
- 김련희 (2002) 「학부차원의 번역교육: 통번역의 이해와 연습」, 『인문과학연구』 8: 111-133.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김복남, 김명자 (2019) 「Anderson의 교육목표분류체계에 기초한 간호관리학 교과목의 학습목표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5(3): 198-207.
- 김순미 (2016)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들의 참여 번역 현상: 그 의미와 번역계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 『번역학연구』 17(3): 7-32.
- 김순영 (2006)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

- 트 분석 교과의 도입」, 『통역과 번역』 8(1): 27-43.
- 김영신, 이해숙, 신애경 (2007) 「Bloom의 신 교육목표 분류 체계에 기초한 초등학교 과학과 수업 목표 분석」, 『초등과학교육』 26(5): 570-579.
- 김인성 (2023) 「ChatGPT의 번역교육 활용가능성 검토: PACTE의 sub-competences에 따라」, 『2023년 봄 한국번역학회-동국대 번역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1-131.
- 김중희 (2016) 「해외대학의 CAT(Computer Aided Translation) 수업사례 분석을 통한 언어 기반 융합수업 모형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4(3): 25-44.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일고찰 -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1): 21-51.
- 박기범 (2016)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기반한 사회과 성취기준 분석 - 2015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7(4): 135-152.
- 박수정, 최은실 (2023) 「Chat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 고찰」, 『번역학연구』 24(2): 131-160.
- 박지영 (2017) 「언어 기술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20대 글로벌 LSP의 통번역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37-168.
- 박지영 (2023) 「국내 통번역대학원 CAT 번역수업 현황」, 『2023년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국내학술대회 K-콘텐츠와 통번역 발표논문집』: 63-78.
- 변순용 (2015) 「대학과 대학교육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교양교육연구』 9(1): 11-28.
- 서봉언 (2020)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교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30(3): 55-79.
-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 손행미, 김현숙, 고문희, 유수정 (2011) 「간호대학 학부과정 의사소통 교과목 현황 및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426-434.
- 신지선 (2013)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 - 교육내용, 수업 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131-150.
- 신진걸, 조철기 (2008)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근거한 지리 수업목표의

- 진술과 평가의 실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16(2): 129-144.
- 안인경 (2019) 「현대 한국 통번역의 역사와 과제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GSIT) 개원 40주년을 맞아」, 『통번역학연구』 23(4): 113-141.
- 이상빈 (2015) 「국내학부 영어 통번역 교육훈련의 문제와 해결방향: 한국외대, 동국대, 경희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21-44.
- 이지민 (2021) 「TED 자막 번역 전략 설문 조사」, 『통역과 번역』 23(1): 185-211.
- 이향 (2011) 「학부에서의 실용번역 교육에 관한 고찰: 프랑스어문학과에서의 실용번역 교육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167-186.
- 이향 (2016) 「학부 번역교육의 목표: 쟁점과 제안」, 『프랑스어문교육』 (55): 117-136.
- 이향 (2018) 「번역테크놀로지, 번역, 번역교육」, 『인문사회 21』 9(1): 607-620.
- 전종희 (2023) 「대학교육 혁신 사례 및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5(5): 551-563.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192.
- 최은실 (2021) 「통번역 학습자들의 강의계획서에 대한 인식 조사 - P 대학교의 활용도, 만족도, 중요도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56: 125-148.
- 최희경 (2010) 「번역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소고 - 강의계획서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4(1): 167-197.
- 하소현, 광대오 (2008) 「Bloom의 신 교육목표 분류학에 의한 초등 과학 영재교육 자료의 수업목표 사례 분석」, 『영재교육연구』 18(3): 591-612.
- Anderson, Lorin, David Krathwohl, Peter Airasian, Kathleen Cruikshank, Richard Mayer, Paul Pintrich, James Rath, and Merlin Wittrock (2001/2005).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New York: Longman.
- Biggs, John and Catherine Tang (1999/2011) *Teaching for Quality Learning at University*,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 Bloom, Benjamin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Book 1 Cognitive Domain*, New York: Longman.
- Delisle, Jean (1998) 'Définition, rédaction et utilité des objectifs d'apprentissage en 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Los estudios de traducción: un reto didáctico* 5: 13-43.
- Gile, Daniel (1995) 'Interpretation Research: A New Impetus?' *HERMES: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Business* 14: 15-29.
- Jones, Henry (2019) 'Wikipedia as a Translation Zone: A Heterotopic Analysis of the Online Encyclopedia and Its Collaborative Volunteer Translator Community', *Target* 31(1): 77-97.
- Katan, David (2014) 'Uncertainty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s: Time to Transcreate?', *Cultus: The Intercultural Journal of Mediation and Communication* 7: 10-19.
- Kelly, Dorothy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Manchester: St. Jerome.
-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in Fabio Alves (ed.) *Triangulating Translation: Perspectives in Process Oriented Research*, Amsterdam: John Benjamins, 43-66.
- Pym, Anthony (1992) 'Translation Error Analysis and the Interface with Language Teaching',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279-288.
- Pym, Anthony and Ester Torres-Simón (2021) 'Is Automation Changing the Translation Prof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70: 39-57.
- Wilss, Wolfram (1976) 'Perspectives and limitations of a Didactic Framework for the Teaching of Translation', in Rechar W. Brislin (ed.) *Translation Applications and Research*, New York: Gardner, 117-137.



<인터넷 자료>

김태주 (2022. 7. 28.) 「‘文정부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조선일보』. Available at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7/28/2NAP5JQFCJCXBNIE54EIXG57S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7/28/2NAP5JQFCJCXBNIE54EIXG57S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남궁민 (2021. 8. 24.) 「고교학점제 2년 빨라진다, 2023년 고교 95%서 시행」, 『중앙일보』. Available at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743>

[Abstract]

## **What Are the Teaching Objectives of Korea's Undergraduat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Degree Programs?**

Sukyoung An & Won Jun Na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eaching objectives of Korea's undergraduat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I) degree programs. Since the growth of undergraduate T&I majors in the early 2000s, many studies argued that teaching objectives of undergraduate programs should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master's programs since the latter focus on nurturing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They suggest undergraduate programs should aim at fostering students' bilingual competence, translation competence, and cultur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What is the next step for Korean T&I programs?' To find the answer, three undergraduate programs were examined; the department of Applied English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at Kyung Hee University,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Dongguk University, and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udy analyzed these departments' online introductions, curricula, and syllabi by applying PACTE's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and Revised Bloom's taxonomy, and compared teaching objectives at three different levels: institution, department, and course. This study argues that more specific teaching objectives at the course level need to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Keywords: undergraduate T&I program, curriculum, teaching objectives, PACTE's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Revised Bloom's taxonomy

주제어: 학부 통번역교육, 교과과정, 수업목표, PACTE 번역능력 모델,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

안수경(1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EICC학과 강사

haengbok20@naver.com

관심 분야: 학부번역교육, 아동문학번역, 문화번역

남원준(교신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EICC학과 교수

wjnam@hufs.ac.kr

관심 분야: 통번역교육, 번역이론과 실제의 접목, 커뮤니티 통번역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